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신학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7장 '신학', 411–420쪽 (원문 끝의 '제38장' 표시로 장 번호 확인)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말뜻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본질적으로 성경 연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찰스 하지의 '성경 사실의 과학'이라는 정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미 사실을 보여 주는데 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빈틈을 찾아냅니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학은 신약이 말하는 '가르침'처럼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려고 있다. 따라서 신학은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로 신학의 다섯 분과와 신학 방법(성경 중심)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사람 마음에 새기시는 통로라고 결론짓습니다.

📜 절별 정리

📜 1. 신학은 성경 연구다 (서론 ①)

프레임은 먼저 신학적 성찰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영유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더 정확히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연계시와 말씀계시는 서로의 뜻을 밝혀 줍니다. 자연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이고, 말씀계시는 말로 주신 계시입니다(13–14장 참조). 그래도 신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뜻에 대한 해석에 일단 도달하면, 그 지식이 자연계시에서 끌어낸 어떤 생각보다 앞섭니다. 그러니 신학은 슐라이어마허의 말처럼 인간의 종교 의식이나 감정을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어 단어 수를 세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프레임은 이 질문을 던지며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 신학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연구한다
2. 자연계시와 성경은 서로를 비춘다
3. 성경 해석이 정해지면 자연 지식보다 앞선다
4. 신학은 종교 감정 분석이 아니다(슐라이어마허 반대)
5. 그럼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나? — 남은 질문

📜 2. 하지의 정의: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인가 (서론 ②)

19세기 미국 프린스턴의 신학자 찰스 하지는 신학을 과학으로 보았습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지질학자가 바위를 다루듯 신학자는 성경의 사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는 신학이 성경의 사실들을 '적절한 순서와 관계'로 배열하고, 그 안에 담긴 일반 원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주관주의라면 하지는 객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는 사람의 내면 경험에서 신학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객관주의는 사람 밖에 있는 진리에서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프레임은 하지가 성경 중심이므로 슐라이어마허보다 확실히 낫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주고 사실을 보여 준다면, 신학은 무엇을 더 하는가? 또 '적절한 순서'라는 말은 성경의 원래 순서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신학 '체계'가 성경보다 낫거나, 성경 이야기 밑에 숨은 '진짜 뜻'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하지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의 높은 성경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이런 오해를 잘 막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는 결국 무엇을 위해 성경의 사실을 다시 진술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1. 하지: 신학은 성경 사실을 다루는 과학

3. 하지가 낫다, 성경 중심이기 때문
4. 성경이 이미 사실을 보여 주는데 신학은 왜?
5. '적절한 순서'는 체계가 성경보다 낫다는 오해를 낳는다

📜 3. 신학은 사람을 세우는 가르침이다 (서론 ③)

프레임은 하지의 빈칸에 '교화'(edification)를 채웁니다. 교화는 믿는 사람을 신앙 안에서 세워 준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객관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말합니다. 프레임은 이 생각을 신약의 '가르침' 단어 묶음에 맞춥니다. 디다스코(가르치다), 디다케(가르침), 디다스칼리아(교훈)가 그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아홉 구절을 들어 이 단어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목적과 함께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특히 '바른 교훈'의 '바른'(sound)은 '건강을 주는'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슐라이어마허식 주관주의는 아니지만, 사람을 향하는 '주관적 방향'을 가집니다. 하지가 이 점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프레임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신학의 학문적 위상을 지키고 싶었거나, 슐라이어마허의 제자들에게 빌미를 줄까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정의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결정권은 성경에 있고, 성경은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가르침을 권합니다.

1. 신학의 목적은 교화, 곧 사람을 세우는 것
2. 신약의 '가르침'은 늘 사람을 세우려고 쓰인다
3. '바른 교훈'은 '건강을 주는 가르침'
4. 주관주의는 아니지만 사람을 향한다
5. 학문 체면보다 성경이 정의를 정한다

> **사도행전 2:42**
> 첫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교제·떡뗌·기도와 나란히 놓인다. 가르침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4:6

가르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르침의 기준은 듣는 이의 유익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디모데전서 1:10

악한 행실이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 교훈은 삶과 윤리에 직결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2:7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다. 가르침은 사도의 사명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4:6

형제를 깨우치는 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다. 가르침은 사람을 기른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6:3-4

'경건에 관한 교훈'을 떠나면 교만과 분쟁이 생긴다. 가르침은 열매로 드러난다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후서 4:2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다.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목회 행위다

디도서 1:9

바른 교훈은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한다. 가르침은 돕고 지킨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9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묶여 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3, 디도서 2:1 (각주)

디모데전서 1:10, 디도서 1:9와 함께 영어 성경이 디다스칼리아를 'doctrine'(교리)으로 옮긴 곳이다. 오늘 '교리'라는 말의 성경적 뿌리를 보여 준다

디모데후서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도서 2: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 4. 모든 질문, 그리고 삶 자체가 신학의 자리 (서론 ④)

신학이 교화를 위한 가르침이라면, 신학은 사람의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을 어려운 질문과 연결합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생과 믿음의 순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다바르'(말씀)의 뜻이나 창세기 1:1의 의미를 묻는 질문도 신학입니다. “엄마가 안 볼 때도 하나님은 보셔요?”라는 아이의 질문도 신학입니다. 더 나아가 신학은 삶과 행동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자는 결정 하나하나에서 성경에 순종해야 하고, 행동도 말처럼 사람을 세우거나 무너뜨립니다. 경건한 사람을 본받는 것은 중요한 배움의 방식입니다(43장). 그들의 행동에서

버리자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다만 학문적 신학이 다른 신학보다 높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신학 교수도 캠퍼스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그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1. 신학은 질문·의심·반대에 응답한다
2. 어려운 교리도, 아이의 질문도 신학이다
3. 말씀대로 사는 행동도 신학이 될 수 있다
4. 이론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5. 학문 신학이 더 높지 않다

> **창세기 1:1**
> 근거 구절이 아니라 예시다. “이 구절의 뜻이 뭔가요?”라는 해석 질문도 신학의 주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5. 신학의 정의: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서론 ⑤)

프레임은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방식과 사람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다 담을 수 있는 말을 찾습니다. 그가 찾은 유일한 말이 '적용'입니다.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질문에 답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본문, 번역, 해석, 윤리, 신앙 성장에 대한 질문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에 더해 왜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처음 질문의 답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 정의에 그의 세 관점이 담겨 있다고 밝힙니다. 성경은 규범적 관점, 사람은 실존적 관점, 삶의 모든 영역은 상황적 관점입니다.

1. 가장 포괄적인 말은 '적용'
2. 적용 = 필요·질문·결정에 성경을 쓰는 것

4.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 적용해야 하니까
5. 성경·사람·삶 = 규범·실존·상황 관점

>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 6. 신학의 종류 (원문 1절)

프레임은 전통적인 신학의 분류를 '적용'이라는 정의로 다시 설명합니다.

- 주경신학은 성경을 절마다 풀어 해석하는 일입니다. 특정 구절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적용입니다.
- 성경신학은 성경을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 냅니다. 신학이라면 단순한 이야기 서술에 그칠 수 없고,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갖는 의미를 다뤄야 합니다.
- 조직신학은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예수님, 바울, 요한이 죄 용서에 대해 한 말을 모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자가 세운 큰 '신학 체계'(교의학, 신학대전 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째, 체계는 성경 밑에 숨은 참 의미가 아닙니다. 잘해야 성경의 요약입니다. 참 권위는 이야기·노래·비유·서신·환상을 모두 품은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둘째, 큰 체계만이 조직신학의 정당한 형태는 아닙니다. 교리 하나, 질문 하나를 다루는 것도 조직신학입니다.

- 역사신학은 과거 신학을 분석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성경을 잘 적용하려고 할 때에만 참 신학이고, 그 목적이 없으면 그냥 다른 학문입니다. 프레임은 역사신학을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 신학을 연구하는 일'로 정의합니다.
-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의 한 갈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합까?”를

1. 다섯 분과 모두 '적용'으로 다시 정의된다
2. 성경신학은 순수 이야기에 그칠 수 없다
3. 조직신학은 실용적: 오늘 무엇을 믿을까
4. 신학 체계는 잘해야 성경 요약일 뿐
5. 역사신학은 교회의 현재·미래를 위한 것

> “기껏해야 그런 체계는 성경 요약에 불과하다.”

📜 7. 신학 방법: 성경 중심 (원문 2절)

프레임은 신학 방법을 『신지식론』에서 자세히 다뤘다고 밝힙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신학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려면 늘 성경과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적 견해든 성경의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을 돕는 '보조 학문'은 많습니다. 고대 언어와 문화, 교회사, 현재 신학 문헌이 그렇고, 심리학·사회학·정치학·경제학·철학·문학 비평·자연과학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문은 해석을 직접 돕고, 어떤 학문은 성경을 적용할 상황을 이해하게 돕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보조 학문들이 신학을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 글이 성경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고 사상가들을 비교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판넨베르크까지 여러 신학자를 아는 것은 좋고, 그들 사이에서 자리를 재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안도 성경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야 하는 조직신학자는 누구보다 성경과 오래 있어야 합니다. 보조 학문 중 어느 것도 '하나님 백성을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탁월함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식, 기도의 영,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주에서는 그 원인 하나로 현재의 신학자 양성 제도를 듭니다. 자유주의 대학 박사과정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경 적용 훈련 대신 '최신 논의'와 자율적 이성에 따른 '독창적 기여'를 요구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도 그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복음주의 안의 교리 쇠퇴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1. 모든 신학 주장은 성경 근거를 보여야 한다
2. 보조 학문은 해석과 상황 이해를 돕는다
3. 문제: 성경 없이 사상가 비교만 하는 신학
4. 조직신학자야말로 성경과 가장 오래 있어야
5. 학문 + 예수님의 마음 + 기도 + 사람 이해

📜 8. 하나님 말씀의 소통으로서의 신학 (원문 3절)

프레임은 신학을 35장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좋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므로 신학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신학자가 다른 교사나 설교자보다 불오하거나 무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오는 틀릴 수 없다는 뜻이고, 무오는 실제로 틀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학자도 교사와 설교자처럼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일을 잘하면 그는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신자의 머리와 가슴에 새기시려고 쓰시는 수단입니다. 프레임은 좋은 신학이 성경 저자들이 처음 쓴 원문, 곧 자필본의 전달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4부 전체의 흐름과 맞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1. 좋은 신학 = 하나님 말씀의 바른 전달
2. 신학자가 불오·무오하다는 뜻은 아니다
3.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수단
4. 좋은 신학은 성경 원래 말씀의 내용을 전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연계시 / 말씀계시

자연계시는 창조 세계와 사람의 본성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것이고, 말씀계시는 말로 주신 계시이며 지금은 성경이 그 형태다.

충족성 / 명료성

성경이 믿음과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다는 것.

주관주의 / 객관주의

신학을 사람의 내면 경험에서 시작하느냐(슐라이어마허), 사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시작하느냐(하지)의 차이.

교화(edification)

가르침으로 믿는 사람을 신앙과 순종 안에서 '세워 주는' 일. 영적 건강을 키우는 것.

적용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질문에 답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성경을 쓰는 것. 본문 연구와 해석도 여기에 들어간다.

디다스코 / 디다케 / 디다스칼리아

신약 헬라어의 '가르치다 / 가르침 / 교훈'. 영어 성경은 디다스칼리아를 'doctrine'(교리)으로 옮기기도 한다.

주경·성경·조직·역사·실천신학

각각 구절 해석, 성경 속 하나님 역사의 흐름, 주제별 성경 전체의 가르침, 과거 신학 연구, 말씀 전달 방법을 다루는 신학 분과.

불오 / 무오

불오는 '틀릴 수 없음', 무오는 '실제로 틀린 것이 없음'을 뜻한다. 성경에 쓰는 말이지 신학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자필본(친필 원문)

성경 저자들이 처음 쓴 원래 문서. 좋은 신학은 그 원래 말씀의 내용을 전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학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경 연구다.
- 성경이 이미 진리를 주는데도 신학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그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학은 신약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질문과 순종하는 삶까지 신학의 자리다.
- 모든 신학 분과와 체계는 성경 아래 있다. 어떤 신학적 주장도 성경적 근거를 보여야 정당하다.
- 좋은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사람 마음에 새기시는 통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0편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